

현장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

도교육청, 초등 6곳 등 총 20개 학교 대상 '찾아가는 정책 간담회' 내달 1일까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 학교유치원(이하 유·원)을 찾아가는 정책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정책 간담회는 1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6개교, 고등학교 6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20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북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지원을 위한 지역·규모·학교급별 교육활동 현황을 파악해 실질적

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14개 시군별로 1~2개 학교를 선정해 방문할 예정으로 △전주 근영여고, 전주호성중 △군산/탑골유치원, 전북의대 △익산 합일중 이리부초 △정읍 삼고울중 옥동초 △남원 한울학교 남원 용성중 △김제여고, 금구중 등 시 지역은 각각 2개 학교를 방문한다.

군 지역은 완주 삼례동초, 진안 제일고, 무주 중앙초, 장수 전북유니텍고, 임실 지사초, 순창중 고창초에서 각각 정책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교사 수업전문성 신장을 통한 수업혁신 방안, 기초학력 및 학력신장 방안,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방안 학생중심 학생자치, 학부외 교육,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 등이다.

한규수 정책공보관은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난 후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 비전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면서 "현장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좋은 학교 되자”

신동아학원, 전주대서
2023년 시무 예배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은 3일 전주대 JJ아트홀에서 2023년 신동아학원 시무 예배를 갖고 2023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시무 예배에는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차종순 이사장과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을 비롯한 법인 산하기관인 전주대, 전주비전대, 영생고, 전주사대부고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전주비전대 김영선 목사(교육)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신동아학원 연합찬양팀의 특송 전주대 한병수 선교봉사처장의 대표기도, 차종순 이사장의 설교 및 축도, 신년하례 순으로 진행했다.

차종순 이사장은 “오늘 우리 시대를 바꾸기 위한 최고의 대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며,

“올해도 전주대, 전주비전대, 영생고, 전주사대부고 모두 기독교 학교로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좋은 학교가 되자”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2023년을 ‘뜻

대를 향하여(Toward the goal)’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학생 성공과 지역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기독교 명문 사학이 되기 위해 정진하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 '경사났네'

대기업 56 · 공무원 46 · 국가직 지역인재 19 · 공기업 15명 등 합격

전북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이 대기업과 공무원 시험 등에 대거 합격해 화제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직업계고 재학생 및 졸업생 140여 명이 대기업을 비롯해 공기업, 국가직 지역인재 공무원 시험 등에 합격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직 지역인재 9급 19명, 지자체 공무원 46명, 공기업 15명, 대기업 56명 등이다.

먼저,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은 올해 19명이 최종 합격했다. 학교별로는 강호항공고 4명, 전주공고·전주공업고·군산여상·완산여고·원광정보예술고·학산고·한국한방고·각 2명, 정경여고 1명 등이다.

또 지자체 공무원은 전북도청 6개

직렬에 31명, 남원시청 시설 직렬 등 4명, 김제시청 농업 직렬 3명, 전북교육청 기계 등 3개 직렬에 4명, 타시도 공무원 4명 등 총 46명이 합격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에도 다수가 합격했다. 한국철도공사에는 전북기계공고 2명, 군산여상 1명, 전주공고 1명, 강호항공고 2명 등 6명이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3명, 한국수자원공사 2명, 농어촌공사 1명, 한국폴리텍대학 1명, 한국환경공단 1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명 등 모두 15명이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대기업에도 수십 명이 합격했다. 전북기계공고 12명, 군산기계공고 11명 등 총 23명이 현대자동차에 합격했고, 전북하이텍고 2명, 강호항공고 5명이 삼성전자에 합격했다. 또 포스코(7명), 캐논코리아(5명), 현대상호 증권(4명), 전주케미퍼(3명) 등에서도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강 미래인재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쳐왔다”면서 “올해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 공무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나아가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우수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다함께 다시 새롭게”

국립군산대, 시무식 열고 새해 업무 시작
“국가고등교육 혁신 리딩 대학 될 것”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2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시무식을 개최하고, 계묘년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였다. 시무식에서는 이장호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장호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립군산대학교는 교육수요자, 채용수요자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서 기업과 대학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올해에도 국가고등교육 혁신을 리딩해나가는 대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학은 군산·새만금·장항국가산업단지의 중심대학으로서, 국가 산업의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고, 서천, 장항, 군산, 부안, 고창 등으로 연결되는 서해안벨트의 해양산업에 발전에 필요한 해양수산 분야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리면서, 새해에 “다함께 다시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최고의 대학을 만들어 보자고 했다.

덧붙여 이 총장은 “앞으로 전북지역 국립대학들이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캠퍼스를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상상하며 발전하는 통합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원산지 표기 어근 납품업체 학교급식 입찰 단계서 배제

정부가 위생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기 어근 납품업체를 학교급식 입찰에서 배제하는 관련법 개정 추진한다.

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생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기 어근을 어근 업체에 대해 식재료 구매계약 참가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로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송부해 입법 절차를 밟고, 법이 개정되면 시행령을 고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계획이다. /뉴스1

‘전북대 언론인상’ 후보자 접수

6일까지... 언론사별 2명 이내 복수 추천 가능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와 전북대 언론인회(회장 김준호)는 2023년도 전북대학교 언론인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추천 분야는 언론인상 2명(신문 방송·통신), 공로상 2명(신문 방송·통신) 등이다. 언론인상은 전북대를 졸업한 전·현직 언론인, 공로상은 전북대 의 대학을 졸업한 전·현직 언론인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상 후보자는 언론사별로 추천하며, 분야별 2인 이내 복수 추천도 가능하다. /정은성 기자

제출 서류는 후보자 공적조서와 이력서 각 1부며, 관련 양식은 전북대 홈페이지(www.jnu.ac.kr) 교내 공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6일까지며, 추천 서류 등을 온라인(prtax@jnu.ac.kr)으로 보내면 된다.

수상 후보자 추천이 완료되면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홍보실(☎063-270-219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정시모집 경쟁률 4.87대 1

지난해보다 0.09 높아져
국제이공학부 16대 1
사회복지학과 11.7대 1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 2일 오후 6시 2023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467명 모집에 7,150명이 지원해 4.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78대 1보다 0.09 높아진 수치다.

먼저 679명을 선발하는 가군 일반학생 전형은 5.82대 1을, 691명을 모집하는 나군 일반학생 전형은 4.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밖에도 가군 지역인재전형 2.59대 1, 지역인재 기회균형 전형 2대 1, 농어촌학생 전형 7대 1, 기회균형선발전형 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나군 경쟁률은 일반전형(예체능)이 21대 1, 지역인재 기회균형 전형 2대 1, 농어촌학생 전형 6대 1, 기회균형선발 전형 3.4대 1, 민학도 전형 2대 1 등이다.

특히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는 나군 일반전형에 국제이공학부로 1명 모집에 16명이 지원,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학과 11.7대 1, 지리교육과 11.67대 1, 약학과 10.78대 1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

다만, 최종 경쟁률은 원서접수 확인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예체능 계열은 오는 13일 실기 고사가 진행된다. 이후 합격자는 일반학생과 지역인재전형이 1월 25일, 예체능 계열과 특별전형은 1월 28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익산교육문화회관, 9~31일 학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익산교육문화회관은 9~31일 3주간 학생교육프로그램 및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생교육프로그램은 겨울방학중 학생들의 여가활동과 체험활동으로 심산리전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체육, 과학, 미술, 인문, 수영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또 겨울독서교실은 '생각하는 경제 이야기'라는 주제로 '출동! 미니 퀴즈 클럽' 신현수 작가와의 만남과 금융전문가 특강을 펼칠 예정이다. 겨울독서교실 기간 중만 성적이 우수한 어린이 5명에게는 전라북도교육감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상, 익산교육문화회관장상 등을 수여한다.

김진주 교육문화과장은 "겨울방학 프로그램 및 독서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뜻깊고 알차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독서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원광대, LINC 3.0 서포터즈 성과발표회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교내 프라운과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2022학년도 LINC 3.0 서포터즈 성과발표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LINC 3.0 서포터즈 성과발표회 및 워크숍은 LINC 3.0 사업단 조영삼 단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서포터즈 12명의 성과발표와 함께 수료증 및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1박 2일 동안 워크숍이 이어졌다.

LINC 3.0 서포터즈 학생들은 LINC 3.0 사업단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시로봇 페더 운영관리, 브이로그 제작 및 촬영을 비롯해 SNS 등을 활용한 각종 홍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12월까지 6개월 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서포터즈 활동을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이주한 학생이 총상장과 100만 원의 장학금을 받는 1등의 영예를 안았다.

LINC 3.0 사업단장 조영삼 교수는 "성과발표회를 통해 서포터즈 학생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LINC 3.0 사업단 프로그램에 교내 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재학생들의 사회협력 마인드 제고 및 취업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대 정시모집 경쟁률 2.13대 1

보건·사범계열 속한 '다'군 경쟁률 높게 나타나
물리치료학과 15대 1 · 영어교육과 7.67대 1 등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일 2023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732명 모집에 1,557명이 지원해 2.1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건계열과 사범계열이 속해있는 다군의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물리치료학과 15.00:1, 간호학과 9.13:1을, 사범 계열인 영어교육과 7.67:1, 과학교육과 4.50: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외에도 정시 나군 수능(일반학생 전형)에서는 상담심리학과가 8.00:1, 정시 가군 수능(일반학생전형)에서는 게임콘텐츠학과 13.00:1, 컴퓨터공학과 11.00: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한편 최초 합격자 발표는 오는 2월 3일이며, 등록금 납부는 2월 7~9일 3일 간이다.

입학 관련 사항은 전주대 입학지원실(063-220-2700)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임실 신평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최근 '기부란 주제로 2022년 신평폴리마켓을 개최, 이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연말연시를 맞아 교직원을 비롯한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장터를 열고, 행사 수익금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학생들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은 다양한 물품을 기증하고, 또 세대별 가게를 창업해 판매할 물건을 직접 만들었다.

학부모들은 재능기부 진로교육, 음식코너를 맡아 폴리마켓에 동참했다.

행사에 참여한 백경림 학생은 "작은 일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즐거웠다"며 "앞으로도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은희 교장은 "학생들이 나눔과 배려를 행동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행사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학부모들께도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